



연합회 소식 ❤



¶ [연합회장 동정] ¶

박천상 회장, 환경부 실국장과 환담

연합회 박천상 회장과 김병오 국장은 지난 8일 환경부를 방문하여 이병욱 환경부차관, 문정호 기획조정실장, 전병성 환경전략실장, 홍준석 물환경정책국장, 신총식 환경기술과장을 만나 연합회 현안사항에 대해 격의없이 의견을 교환했다.

이병욱 차관은 “연합회에 대해 예전부터 잘 알고 있으며 월간지에 기고한 바도 있다”며 반갑게 맞이했다.

또 전병성 환경전략국장은 “그동안 연합회 활동에 대해 격려하고 향후에도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박천상 회장, 금강유역환경청과 환담

박천상 연합회장은 지난 11일 금강유역환경청을 방문하여 새로 부임한 전태봉 금강유역환경청장을 만나

연합회 소개와 대전·충남환경기술인협의회 활성화를 위해 환담을 가졌다.

¶ [연합회 동정] ¶

제2차 이사회 및 임원연찬회 성황리 마무리

연합회는 지난 25일과 26일 양일 간 전북 부안 채석강리조트ユ스호스텔에서 ‘2008년도 제2차 이사회 및 임원연찬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천상 연합회장과 이성호 전임회장을 비롯 연합회 임원과 지역협의회 임원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

했다.

25일 오후 4시에 전북도청 환경정책과 한웅재 과장의 ‘전북도의 환경관리실태 사례발표’를 시작으로 17시에 연합회 2008년도 제2차 이사회를 거쳐 저녁 19시부터 만찬이 이어졌다.

저녁 만찬시간에는 상호 상견례

와 함께 연합회와 지역협의회의 현안사항 토론과 향후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다음날 일행은 조식 후 9시에 집결하여 ‘왕의 남자’와 ‘이산’ 촬영장인 부안세트장을 구경하고 곧바로 새만금 시찰에 나섰다.

새만금 방조제는 아직 안전상의



이유로 일반인들은 초입까지만 출입이 허용되고 있으나, 우리 일행은 전라북도의 도움 아래 방조제 중간 지점인 탐조대까지 들어갈 수 있었다. 환경인이라면 한번쯤은 다녀온 만한 곳이라 일행들은 관심있게 설명듣고 관찰했다.

시찰을 마치고 일행은 지역특산 음식인 바지락죽으로 점심식사를 하고 1박 2일의 아쉬움을 뒤로하고 각자 생활터전으로 복귀했다.



충북북부환경기술인협의회 발족

연합회는 지난 25일 2008년도 제2차 이사회에서 충북북부환경기술인협의회 발족을 의결·승인했다.

연합회는 지난 4월 4일 충북협의회로부터 가칭 충북북부협의회 분리 독립에 대한 승인공문(충환연 제 08-04-02호)을 접수하여 구성 요건 등을 검토한 후 4월 25일 2008년도 제2차 이사회에 의결을 불였다.

그 결과 만장일치로 의결된바 연



합회장이 승인하여 정식 발족하였으며, 분할지역은 진천군, 음성군,

충주시, 제천시 등 4개 지역을 포함 한다.

연합회 임원과 환경부 법무담당팀과 간담회

연합회 임원과 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팀과 지난 17일 환경부 회의실에서 환경규제 선진화를 위한 간담회

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환경부의 요청으로 이루어졌으며, 연합



회는 지난 수일간 회원들로부터 수렴한 규제개혁에 대한 건의사항을 환경부에 전달했다.

주요 건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하수처리구역내 사업장 폐수처리시설 방류수 배출허용기준 적용 법규 합리화
2.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부작성 간소화
3. 유기성오니 해양배출 규제강화에 따른 대책마련
4. 석면처리기준 규제완화
5. 일반사업장내 건설폐기물처리 방안마련
6. 사업장폐기물 감량계획 및 실적제출 제도폐지
7. 잔류성 유기 오염물질 규제강화 완화
8. 화학물질 배출량 공개제도 보완

9. 저장탱크 중복검사 개선
10. 잔류성 유기 오염물질 함유 기기 소유자 규제완화 개선
11. 표면처리업체 배출허용기준 오염물질 기준완화
12. TMS 설치비용을 사업장(기업)에서 부담하는 것은 부당
13. 자동세륜기를 폐수배출시설 항목에서 제외 요청
14.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신고대상에서 제외 요청
15. 도금 사업장 총질소 기준치 이내 처리 곤란 처리방법에 대한 환경부의 대책이 요구
16. 신고필증상 종별 안에서 시설의 변동이 용이하도록 법규 완화
17. 환경기술인 선임제도 완화에 따른 기술인 부족과 업체의 관리부족(3종까지 의무고용 요구)
18. 환경기술인 교육(법정교육)은 환경기술인과 사업장에서 선임하는 일반인과는 구별해서 제도에 맞는 교육을 요구
19. 환경사고 신고전화 128번의 전화요금 부담체제 개선
20. 지도점검 적발시 양벌규정 완화(현재 기술인과 기업주 5:5)

이날 건의사항은 환경부 관련부서에서 검토한후 연합회와 재심의하여 법개정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날 연합회측 참석자는 박천상 회장, 김병오 사무국장, 김완배 수도권부회장, 김휴선 인천협의회장, 이세일 울산협의회장 등 5명이며, 환경부측은 송호석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을 비롯, 박은추사무관, 이창규 사무관, 허혜인사무관, 김양희주사 등 7명이 참석했다.

[지역협의회 동정]

경기서부 - '2008년도 상반기 환경기술인 교육' 실시

경기서부환경기술인협의회(회장 이동호)는 지난 3월 28일 환경기술인의 업무 향상을 위하여 수질, 대기, 폐기물 및 환경 관련 법규와 지도 점검 방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교육을 200여개 회원사가 참석한 가운데 실시하였다.





대구경북 – ‘낙동강 수계 자연보호행사’ 실시

대구경북환경기술인협의회(회장 김성기)는 지난 4월 26일, 27일 양 일간 비슬산 철쭉 축제기간에, 낙동강 수계 자연보호행사를 실시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임원들의 가족이 동반하여, 자연정화운동, 계곡청소

및 환경보호를 위한 유인물 3000천 장과, 딥레恫으로 쓰레기 주워오는 등산객에게 한하여 타올 1000장을 선물하였다.

개막식때, 한나라당 전대표이신 박근혜의원 및 다수의 국회의원이 참석하셨으며, 이종진 달성군수님



께서 우리의 행사를 치하하였다.

경남 – ‘2008년도 제2차 환경기술인 세미나’ 실시

경남환경기술인협의회(회장 강성석)는 지난 4월 10일 2008년도 제2차 환경기술인 정기세미나를 개최하였다.

한국산업단지공단 동남지역본부 본관 6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회원사외 약 80여 명의 기술인들이 참석하여 환경관련법규해설과 최근 기술인들의 관심분야인 악취 및 VOC처리기술에 대하여 중요한 정보를 전달공유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환경관련법규와 정책설명세미나에서는 경상남도 환경지원과 최학림사무관이 참석하여 2008년도에 시행되는 개정법규와 전반적인 환경정책방향에 대하여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진행된 기술세미나에서는 (전)한국환경기술인연합회장을 역임한 유문한 세진환경 대표이사가



참석하여 악취 및 VOC처리기술에 대하여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강의를 하였다.

참석한 환경기술인들은 많은 관심과 호응으로 강의에 임하였고, 세미나종료후 강의기술자료를 회원개인 메일로 발송하여 회원사간에 정보교류와 공유의장을 가졌다.

한편, 2008년도는 경남도와 창원시에서 환경올림픽이라 불리우는 람사르총회를 개최하는 해인만큼

어느 해보다도 환경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본 협의회에서도 경남도와 창원시에서 추진 운영하고 있는 환경관련위원회 및 실무협의회에 회장단이 위원으로 다수 위촉되어 현재 활발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민관합동지역발전참여 및 나아가 환경올림픽 람사르총회의 성공적인 개최에 협의회가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